

III. 헝그리 정신(The Hungry Spirit)

Charles Handy 著(노혜숙 譯), 1998

1. 序

우리 나라는 본래 평화롭고 순박한 백의민족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에 대한 환상**에 빠져들었고, 지나치게 물질 위주의 삶을 살아왔다. IMF의 위기로 성장 신화의 환상이 깨졌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최소한의 자본주의 윤리마저 망각한 채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자본주의 최고 덕목이었던 이기심은 자제력을 상실한 채 고약한 냄새를 드리우고 있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감춰졌던 어두운 면이 이제 서야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찰스 핸디로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얻고자 한다. 물론 그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자본주의 건설을 위한 **올바른 이기주의**는 우리에게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IMF에 의해 삶의 주류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 희망은 다름 아닌 헝그리 정신에 기반을 둔 삶의 회복이다. IMF를 계기로 이제는 우리도 잊혀졌던 **헝그리 정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책은 제1부 ‘뼈격거리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2부 ‘우리 자신의 삶’과 제3부 ‘홀륭한 사회를 향하여’에서 바람직한 자본주의 건설을 위해 개인, 기업, 정부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 論理의 흐름

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를 좀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할 수 없을까(많아지는 것보다 좋아지는 것?)



빠격거리는 자본주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있는 일이라도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시장 원리는 작동하지 않음 • 부(富)는 우리가 추구하는 絶對善이 아니라 수단임 - 생산성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 이익보다 떠넘기는 사회, 치우친 사회를 만듦 • 생산성은 사회 존속을 위해 필요하지만 고차원적 문제의 해결책은 아님



바람직한 자본주의를 위하여		
개 인	기 업	정 부
<p>올바른 이기주의를 가진 주체적 개인으로서, 의미 있는 일들을 수행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개인</p>	<p>변화된 소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시민 기업의 형태를 지니며, 구성원들간의 공통된 약속과 상호 신뢰가 있는 기업</p>	<p>균형을 갖추기 위해 불필요하게 간여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노동력 회복과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힘쓰는 정부</p>

3. 本書의 主要 內容

1) 뼈격거리는 자본주의

○ 시장의 문제점

시장의 원리가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고객의 비위를 맞추지만 고객은 가격이 같은 경우에도 항상 최선을 원하거나 택하지는 않으며, 이로 인해 품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은 성공한 사람에게 모든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을 심화시키며,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매우 가치있는 일들이 단지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당한다.

경쟁의 논리도 반드시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경쟁으로 인해 미국은 점점 부강해지고 있지만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자살자와 폭주족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저하된다. **부(富)는 우리가 추구하는 절대선이 아니라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되어버렸다.**

○ 생산성의 문제점

생산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은 크게 **아담스미스식, 케인즈식, 슈페터식 생산성**¹⁾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어느 하나에 치중함없이 현명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생산성 추구는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보다는 떠넘기는 사회, 치우친 사회(20대 80의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아담스미스식 생산성은 적정한 물건이 적정한 비용으로 적정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케인즈식 생산성은 경제가 수용 가능한 고용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때 잃게 되는 잠재적 생산에 대한 것이며, 슈페터식 생산성은 창조성에 대한 기대와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적응 생산성을 의미함

2) 우리 자신의 삶

우리에게는 경제 체제가 아닌 철학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면서 천천히 주위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 자신의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개인 자치 시대

우리가 선택을 당해왔던 삶으로부터 이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 지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지금의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가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회사는 하나의 인격이다. 현대 사회에는 소유권의 개념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 회사는 경영자나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지고 있으며, 그들이 자치 회사를 책임지고 있다.

회사는 자신의 운명과 행동을 책임지고 있다. 그들은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선택하는 일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 스스로의 올바른 목적 의식 추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올바른 이기주의

올바른 이기주의란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대조 하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삶을 실험해보기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상자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

○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자아를 위한 어떤 목적을 필요로 하는데, 꿈이 여행을 위해 에너지

를 공급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우리는 현재의 궤도 위에서 충분히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궤도를 옮겨가지 않는다. **충분의 수준을** 낮게 정할수록 보다 자유롭게 다른 무언가를 탐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승고함과 불멸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올바른 이기주의는 역설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타인의 필요성

나는 진정한 ‘나’이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한다. 좋건 싫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도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 올바른 이기주의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타인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3) 훌륭한 사회를 향하여

○ 바람직한 기업

기업은 하나의 마을이나 **현대의 구조화된 공동체 개념**이어야 한다. 주주는 단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영향력을 지닌 투자자이지만, 소유주는 될 수 없다. 기업은 그 정신을 기업 구조 자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 규약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민 기업

기업은 시민들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역시 하나의 시민이다. 시민 기업의 현실적인 과제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조직의 목표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하며, 시민 기업의 장점도 **공통된 약속과 상호 신뢰**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직업적으로 유능할 뿐 아니

라 동질 의식을 가진 시민을 선택하는 일에 좀더 힘을 기울인다. 둘째, 재임 기간과 동업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직원 각자와 분명한 계약을 한다. 또한 그러한 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됨을 알려주고, 조직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공식적인 규약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신뢰의 경계선을 알도록 한다. 넷째, 조직이 임무와 존재 가치, 그리고 금전적인 목표 너머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직원들에게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신뢰를 보여주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일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 올바른 교육

어떻게 여행을 하는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자의 충고와 도움을 받으면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삶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여행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이 경험 이후가 아닌 이전에 이루어지는데, 배움은 실제로 반성에 의해 얻어지는 경험이다.

○ 정부에 바란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야기한다. 경쟁적인 방식은 전체적으로는 국가에 부를 창조하지만, 그것을 골고루 뿌려주지는 못한다. 정부의 책임은 시장에서 발생한 부의 일부를 모두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균형 회복을 위해 첫째, 애초 정부가 손대지 말아야 하는 모든 활동에서 손을 떼야 한다. 둘째, 수도, 가스 등 정부 독점을 정부 규제하의 민영화된 독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건강과 교육 등은 정부가 인증한 여러 공급자들 사이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부의 분배는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동은 또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게 하는 열쇠이다.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 제공자들이 그

들의 활동을 통합하고, 컴퓨터와 그 뒤에 오는 후속 장치들이 보다 사용자 위주로 발전될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 **우리가 스스로 더 많은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결정권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

4. 示唆點

IMF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또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있게 되었다. 일어서느냐, 이대로 주저 않느냐. 답은 간단하다. 일어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일어서는가에 있다.

누구나 쉽게 이야기한다. 경쟁적인 세계 시장과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영원히 뒤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선 우리 자신의 상황을 직시해 보자. 비참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우리가 세계 시장에 잘 적응해도 선진 자본주의를 단숨에 따라잡는 것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찰스 핸디를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해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방향성 정도는 터득할 수 있다. 어쩌면 찰스 핸디의 패러다임은 서양의 사고 방식보다는 동양의 사고 방식에 더욱 적합하다. 특히 옛날부터 **헝그리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그러하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양적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냉철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개인은 올바른 이기주의를 갖추고, 기업은 바람직한 시민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정부는 균형을 유지한 채 조정 역할에 힘쓴다면 우리 나라는 어느 선진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다.

(장후석 : chahus@hri.co.kr ☎724-4092)